

1980년대 ‘여학생’의 문화정치

원혜빈

성균관대학교 석사졸업

목차

- 1 서론
- 2 1980년대 총여학생회의 건설과 여학생운동
- 3 ‘여학생 교지’와 여학생 주체의 재구성
- 4 1980년대 여학생 교지의 문화정치
- 5 결론

이 글은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80년대 ‘여학생’의 문화정치—남녀공학 대학 여학생 교지를 중심으로』(원혜빈, 2019)를 요약·수정한 것이다.

1 서론

1980년대는 남녀공학 종합대학에서 여학생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여학생대표기구가 등장하고 승격된 시기이다. 기실 이 시기 운동의 대열의 주요 축 가운데 하나는 각 대학의 여학생이었다. 그런데 지금껏 이들은 ‘진보적 여성운동’ 중심의 여성운동사나 학생운동사에서 주요한 논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또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 내 여성운동에 관한 논의에서 이 시기의 여학생운동은 오히려 비판과 반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1980년대 여학생과 여학생운동이 독자적 여성운동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전체운동에 복무하였다는 기왕의 지적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비판은 여학생운동의 주체였던 1980년대 여학생의 다기한 경험을 일반화하는 한편 그 능동성을 자칫 간과할 위험이 있다.

1980년대 여학생과 그 운동의 정치성을 살피기 위해 이들이 직접 편집과 발간에 참여한 여학생 교지를 검토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유효하다. 여학생 교지는 여학생들이 ‘여대생’의 레테르를 떼어내고 ‘운동하는 여학생’이라는 새로운 주체의 구성을 기도함으로써 남성/남학생이 전유하고 있던 운동의 장과 주류 담론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드문 공간이었다. 이에 본고는 1980년대 여학생과 여학생운동이 형성해낸 지적·문화적 산물과 실천의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또 이 시기에 발간된 여학생 교지가 여학생 및 여성운동의 실천이론을 수용하고 전파할 뿐 아니라 활발한 토론과 논쟁을 이어가는 또 하나의 운동 공간으로 기능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들이 어떻게 정치적 주체로서 ‘여학생’을 탈구축하고자 하였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¹

2 1980년대 총여학생회의 건설과 여학생운동

1 본고는 총여학생회 발족 이후부터 1992년까지 발간된 『녹지』(중앙대), 『석순』(고려대), 『잉태』(연세대), 『정정현』(성균관대), 『청지』(서강대)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으며, 필자의 소속이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각주의 이름 옆에 병기하였다.

독립적인 여학생조직의 필요성은 대학에서 활동하던 여학생들이 널리 공유한 문제의식이었다. 당시 여학생들은 여학생을 위한 독자적인 운동의 장을 통해서만 비로소 진정한 여학생운동의 활성화와 본격적인 활동 방향의 모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총학생회 산하 여학생부는 총학생회의 전체사업에 매몰되어 여학생의 의사를 수렴·집행하거나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어려웠고, 여학생활동가를 배출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할 수도 없었기에 총여학생회 출범은 더욱 간절한 문제였다.

이에 1980년대 중반 이후 여러 대학에서 출범한 총여학생회는 “진정한 여성해방을 쟁취”하기 위해 “여성은 모순 해결의 주체자임을 자각하고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 실천의 장으로서 여학생들의 대표기구이자 민주적 의사수렴 기구”²가 되고자 했다. 이들은 신입여학생환영회·여학생수련회·4.19기념제·여성문화축전 등을 주관하고 여학생회지 발간, 여성문제 심포지엄 개최, 여성문화패 운영 등 여학생의 적극적인 학내 활동을 권장하며 여학생 복지 개선을 위해 힘썼다. 또한 1987년 서울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가 발족함에 따라 ‘여학생운동’이라는 개념이 정착되었으며, 각 총여학생회의 대중적 토대와 운동 경험이 미비한 상황에서 대학 간 연대사업을 통해 여학생들만의 주체적인 투쟁을 조직할 수 있었다.

그런데 총여학생회가 “고립적이고 개인적이기 쉬운 여학우들의 대표기구”인 동시에 “청년학생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민족해방 운동에 함께”³하는 조직이어야 하는 상황은 이들을 딜레마에 빠뜨리곤 했다. 주지하듯이 여학생운동 조직이 특수성과 독자성을 고수하는 것은 운동의 역량을 분산시킨다는 비난을 야기했다. 또 운동이나 조직의 ‘내용’을 생산하는 일이 남성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나름의 실천이론을 아직 구체화하지 못한 여학생조직이 곧바로 공적 담론의 생산자가 되기란 요원했다.

결국 여학생운동의 첫 번째 과제이자 목표는 여학생의 참여를 독려하고 전반적인 의식화 및 주체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됐다. 당초 총여학생회 구성 과정

2 『여명』(성균관대학교 총여학생회지), 성균관대학교 총여학생회, 1987.3.21, 2쪽.

3 『연세여성』 창간호,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1989.4.6.

에서 가장 문제시된 것도 여학생 투표율이 과연 50%를 넘길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 여학생이 사회와 학원의 민주화를 실현할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하에 독자적인 조직을 구성·유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학생 대중의 참여 부족은 당시 학생 자치활동 기구에서 공통으로 겪는 문제였으나 특히 여학생조직의 경우에 그 존폐를 좌우할 만큼 치명적이었다.

여학생 대중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과 시각이 필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학생 교지는 여학생조직이 여학생의 현실과 밀착한 쟁점을 제시하고 담론을 구성하며, 여학생운동의 대중화 및 여학생의 주체화·의식화 작업을 전개할 수 있는 주된 공간이었다.

3 ‘여학생 교지’와 여학생 주체의 재구성

1980년대 여학생 교지는 대개 연간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필자는 주로 해당지의 편집위원에 속한 학생이었으나 교수나 관련 분야 종사자, 외부인사의 글도 자주 수록됐다. 크게 학술, 사회사상, 문예창작물, 학내 관심 사항 등으로 구성되며 화보와 만화·만평도 자주 실렸는데 대체로 여성문제에 관계된 사회사상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편집위원은 1년에 한 번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하여 모집했고⁴ 보통은 편집을 위해 팀이 구성되고 편집이 끝나면 해체되었지만 서클식 체제를 갖추어 편집 활동이나 구성원의 자체 재생산을 시도하는 경우⁵도 있었다.

본래 여학생 교지는 여학생이 ‘여성다움’을 잃지 않고 ‘여자로서의 미덕’을 함양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창간되었으나, 대학 내 여학생조직의 성격이 달라지자 교지의 성격과 논조도 변화한다. 총여학생회의 활동 내용은 여학생 교지의 구성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가령 『녹지』는 1988년까지도 막연한 “여학생들의

4 『石筍』 편집위원 모집, 『고대신문』, 1987.3.16; 『「녹지」편집위원모집』, 『중대신문』, 1989.3.6.

5 「석순약사」, 『석순』 제7호, 고려대학교 석순편집위원회, 1990, 189쪽.

교지”⁶를 자처하거나 여학생의 “종합 학술지이자 교양지”⁷로서의 소임을 강조 받았는데, 이는 그 시기 중앙대 총여학생회의 활동이 미비했던 것과 관계된다. 이러한 모습은 1988학년도에 발족한 총여학생회가 “유명무실했던 총여학생회의 오류를 극복”⁸하겠다는 각오하에 자기분화를 거치는 한편 녹지편집위원회가 언론매체부 산하 교지편집위원회로 독립함에 따라⁹ 사라진다.

『잉태』는 총여학생회의 발족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여학생의 독자적 조직과 여학생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하여 교지가 먼저 창간된 경우이다.¹⁰ 이들은 『또 하나의 문화』, 『여성』, 그리고 타 대학 여학생 교지를 참조하여 지면을 꾸렸는데, 이는 여학생 교지가 1980년대 여학생에 의한 운동에 있어 조직부터 실천까지 다양한 담론의 구성과 연대를 매개하는 장(場)이었음을 보여준다.

연세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당초 총여학생회 산하에 연구기구와 여성문화 담당 기구, 그리고 언론기구를 둔 구조로 구성되었다.¹¹ 연구를 위한 기구에서 여성문제와 사회문제, 학내 여학생문제를 분석하면 언론기구에 해당하는 여학생 교지에서 연구 활동과 성과를 집약하는 한편 다른 여학생 활동을 수렴·홍보한 것이다.¹² 한편 고려대학교의 여학생조직에는 대표기구인 총여학생회, 연구기구인 여성문화연구회 및 서클 여학생부, 그리고 언론기구인 석순과 기반기구인 단대 여학생부가 있었는데, 여기서 『석순』은 총여학생회 산하 기구가 아니었으므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대적인 자율성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여학생 교지의 발행과 활동 과정에서는 특히 편집권이나 예산 문제가 크고

6 고소화(총여학생회장), 「녹지의 성인됨을 축하하며」, 『녹지』 제21호, 중앙대학교 총여학생회, 1988, 19쪽.

7 하경근(중앙대학교 총장), 『여성문제는 날카로운 지성인의 시각으로 투영되어야...』, 『녹지』 제23호, 중앙대학교 녹지편집위원회, 1989, 19쪽.

8 「특별좌담: 총학생회·총여학생회에 듣는다」, 『중대신문』, 1988.3.2.

9 「지난 녹지 다시 보자」, 『녹지』 제50호, 중앙대학교 교지 편집위원회, 2016, 11쪽.

10 손경희, 「격려의 말씀」, 『잉태』 제2호, 1989, 16쪽.

11 성균관대학교 총여학생회의 경우 초기에 여성문화학과 사회여성연구회, 그리고 정정현 편집부를 상설 기구로 두었다.

12 「여대생 문화론」, 『석순』 제2호, 고려대학교 석순편집위원회, 1984, 114쪽.

작은 잡음을 야기한 것을 알 수 있다.¹³ 『석순』과 『정정헌』, 『녹지』 모두에서 지도교수제¹⁴와 원고 검열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편집 및 예산자율권을 쟁취하려는 노력의 과정이 엿보이며, 그 가운데 불거져 교지가 압수되거나 배포금지로 이어지기도 했다.¹⁵

이론적 바탕과 세부적인 의제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이들 여학생 교지의 공통된 목표는 단연 ‘여학생의 자기의식 정립’에 있었다. 학내 여학생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학생 대중의 의식화 및 여성문제의 대중화를 위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다. 이러한 목표하에 ‘여학생’은 “3중고의 여성억압 현실[성·계급·민족모순]을 공유하면서도 지성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사람들”¹⁶로 그려지기 시작한다. ‘여학생’은 이제 지배담론이 이야기하는 탈정치적이고 소비적인 존재가 아니라 “청년학도로서 여성해방의 도정에서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지향과 조건을 가지며” “잠재된 혁명성을 무한히 발휘할 수 있는 존재”¹⁷였다. 지성인으로서의 여학생에 대한 강조는 여학생에게 새로운 사명과 역할을 부여하며, 도래할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를 위하여 투쟁할 주체로서 여학생을 지속해서 호명하는 것과도 같다. 여학생들은 “여학생운동이 자기발전을 충실히 해나가야 함은 전체한국변혁을 위해 매우 중차대한 것이며, 전체운동은 여성운동, 여학생운동의 발전 없이는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들에게 전체운동과 여학생운동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복돋

13 창간호 발행 당시 석순편집위원회의 예산은 고대문화의 1/5~1/4에 불과하였다. 배은주, 「고대 여학생 활동 상황」, 『석순』 제2호, 고려대학교 석순편집위원회, 1984, 134-135쪽.

14 『석순』과 『정정헌』의 사례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예컨대 정정헌편집부는 지속해서 지도교수제를 폐지하고 자문교수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眞靜軒』誌 自律權 요구—지도교수제 폐지등 주장」, 『성대신문』, 1988.6.6. 자세한 함의 내용을 알기는 어려우나 1989년 2월에 발간된 17집부터 당시 사학과 부교수였던 정현백이 자문교수로 참여하였고, 『정정헌』은 총여학생회가 아닌 정정헌편집위원회의 이름으로 발행되기 시작했다.

15 『석순』 제2호의 경우 「사회주의하의 여성」이라는 글이 문제시되어 배포금지 명령과 함께 소각된 일이 있다. 「석순약사」, 『석순』 제7호, 고려대학교 석순편집위원회, 1990, 185쪽.

16 「여학생 활동의 심화확대를 위하여」, 『청지』 제13호, 서강대학교 청지편집위원회, 1985, 212쪽.

17 이주환(89년 총여학생회장), 「여학생운동론」, 『정정헌』 제18호, 성균관대학교 정정헌편집위원회, 1989, 127쪽.

는 관계로 인식되었다.

한편, 여학생조직이 독자적인 투쟁영역과 지향점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여학생 및 여성 일반이 마주한 문제를 인식하고 제기할 수 있는 ‘언어’를 가져야만 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서구 여성학 이론서뿐이었고 이론적 바탕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여학생 교지는 여성 억압의 기원과 본질을 밝히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급진적 여성해방론에 대한 소개 및 평가와 더불어 대표적 이론가들의 저서를 번역·요약한 쪽글을 싣기 시작한다.¹⁸

여학생들은 단순히 여성운동의 이론을 수용하는 대신 ‘성/계급 논쟁’ 등 여성해방론을 둘러싼 활발한 논쟁에 가담하였다. 물론 이론의 차원에서 이들의 논의가 충분히 진전됐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¹⁹ 그러나 이들은 한국의 상황에 들어맞는 이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바탕으로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에 방점을 찍었다. 따라서 다소 무리한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통합이 시도되는데, 이 과정은 여학생에게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을 부여한다.²⁰

여학생들이 여성해방론을 이해하고 수용한 방식은 1980년대 여성운동의 흐

18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을 가장 먼저 소개한 여학생 교지는 『석순』이었다. 『석순』 창간호는 「여성해방사상의 세 이론」이라는 글에서 여러 이론을 살펴 나름의 이론적 체계를 세우고자 하였다. 이전까지 여학생들은 오직 마르크스주의를 경유하여 여성문제를 이해하였으나 『석순』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하여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을 처음 접하게 된다. 정정현 편집위원회, 「성균관의 여성운동과 정정현」, 『정정현』 제25호, 성균관대학교 정정현편집위원회, 1996, 89쪽.

19 독자적 여성이론을 발달시키고자 한 예로 『석순』 4호에 실린 박정열(사학과)의 「여성운동의 본질에 관한 해부」가 있다. 『여성』에서는 이 글이 중대한 개념 및 논리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여성사연구회 편, 「한국 여성해방이론의 전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여성』 제2호, 창작과비평사, 1988. 참조. 이후 『석순』에서도 박정열의 글이 혼란을 일으켜 이론의 정체를 불러왔다고 반성하지만 이 글의 문제의식은 당시 여타 여학생 교지에 큰 시사가 되었다.

20 1980년대 여성해방이론의 ‘번역 붐’에 관한 허윤의 논의는 여학생 교지가 여성해방이론을 수용하여 새로운 언어를 발명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도 유효하다. 관련 내용은 허윤, 「1980년대 여성해방운동과 번역의 역설」, 『여성문학연구』 제2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242-243쪽.

름에 대한 서술에서처럼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는다. 이것이 과학적 인식이나 현실감각의 부족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침 가운데서도 여학생들이 그들의 현재적 문제를 설명할 나름의 논리를 구축하고자 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여학생운동’은 결코 학생운동과 여성운동의 종합으로 여겨지지 않았다.²¹ 여학생운동이 ‘학생’운동이자 ‘여성’운동인 동시에 ‘여학생’운동이고자 할 때, 여기에는 기존 운동의 흐름이 미처 포섭하지 못하는 독자적인 방향성이 생긴다. 이들 여학생은 학내 여성운동의 유일한 담지자이면서도 여학생의 특수한 삶의 조건을 고려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운동권의 이론과 언어를 통하여 여학생들이 여성억압의 기원과 본질을 설명하고자 할 때면 ‘과학적’인 언어로 무엇이 논리인지를 옹골게 말할 수 없는 순간이 도래하곤 했다. 남성 중심적인 대학문화 가운데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듯한 여학생의 상황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언어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는 감정을 추동했다. 이에 여학생들은 전체 운동과의 연대를 추구하면서도 여성 일반, 특히 여학생의 특수성과 관계된 과제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는 성·사랑·결혼을 둘러싼 문제 제기나 대학 내 성차별문화에 관한 비판, 그리고 여학생 취업문제 등 여학생의 생활 및 현실과 밀착한 문제의 인식으로 이어진다.

4 1980년대 여학생 교지의 문화정치

1980년대 여성운동이 전체변혁운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식 아래 민중여성운동을 지원했다고 하나, 이 시기 여학생운동은 오히려 이전 시기 민중여성운동에 크게 빛지고 있었다. 1980년대 여학생이 정치적 주체로 거듭남에 있어 민중여성운동은 큰 지향점이 되었다. 특히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환기하며 쓴 “그 여름날의 투쟁은 우리 것이었으되, 여성의 것으로 되지 못했기에 우리는 아직은 부끄럽다”²²는 말은 민중여성과 나란히 서지 못한 데 대한 부끄러움과 함께 그들의 성과

21 여민숙(영교 85),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하여-여학생 운동-」, 『석순』 제7호, 고려대학교 석순편집위원회, 1990, 107쪽.

22 김성심·권혜란, 「이 가을을 환희의 계절로」, 『정정헌』 제16호, 성균관대학교 총여학생회, 1988, 10-11쪽.

를 토대 삼아 당당한 운동의 주체로 나서고자 하는 다짐으로 귀결된다.

여학생 교지는 한국 여성운동의 계보를 새로 쓰려는 기획하에 여성노동자의 투쟁 경험을 역사화하고자 했다. 이에 여성노동자와 농촌여성, 도시빈민여성의 문제가 자주 다루어졌고, 다양한 여성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는 르포르타주, 노동야학에서 쓰인 글 등이 게재되었다.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여성빈민과 여대생을 자주 병렬적으로 배치하는 것²³은 여학생운동이 특히 예비 노동자로서의 여학생의 모습을 강조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²⁴ 이는 한편으로는 여학생운동이 기층여성·민중여성을 여성운동의 주체로 세우고자 하는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학생운동과 여학생 교지가 여성 노동 문제에 천착한 이유가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동시에 여성의 노동에 대한 여학생들의 변화한 시각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1987년, 새로운 운동을 경험한 여학생운동이 대중을 지향하는 것으로 변화하며 1980년대 여학생 교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주제 중 하나는 ‘여학생 취업문제’였다. 대졸 여성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던 이 시기에 여학생은 학교의 부직 알선에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으며, 기업은 공채 지원 자격에 ‘남성’을 명시하고 있었다.²⁵ 즉, 여성노동의 문제는 그 시기 여학생 자신의 시급한 문제였던 것이다. 이처럼 극심한 취업난에 대해 여학생 교지에서는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이 고용기회와 승진 및 보수에서 불합리한 처분을 받고 있으며, 한국사회가 가정에서뿐 아니라 사회·문화·정치·경제적으로 터무니없이 불평등하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²⁶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물론 여성 자신의 주체적 자각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23 「여성해방의 몸짓으로 새사회를 열어젖히자!」, 『녹지』 제24호, 중앙대학교 녹지편집위원회, 1991, 25쪽.

24 이는 한편으로는 ‘여대생’이 중산층 여성의 전신이기에 사회적 억압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어렵다는 ‘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의 발현이기도 하다.

25 이러한 광고는 『고대신문』을 비롯한 학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반면 여학생 교지에는 속기, 타자학원 광고가 빈번하게 실리는데, 이는 같은 대학에 속한 여성과 남성이 사회적으로는 동일한 위상의 ‘대학생’으로 간주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26 강진숙, 「“여성상위시대 유감” 유감」, 『잉태』 제2호, 잉태편집위원회, 1989, 207쪽.

이에 따라 여학생이 자신을 노동하는 주체라고 자각하고 유대와 연대를 통해 실천적인 움직임을 꾀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된다. 특히 헌법상 남녀고용평등이 보장된 이후에도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당사자인 여학생들의 결집은 필수적이었다. 1989년에는 여대협을 중심으로 한 ‘취업차별 철폐운동’에서 여학생의 인식 변화와 연대에 따른 실천적인 장면을 찾아볼 수 있다.²⁷

여학생 교지는 남녀공학 대학 내에서 여대생을 대변하는 언론매체로서의 성격을 갖는 유일한 기구였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학생이 당면한 현실적 문제를 필수로 다루어야 했다. 여학생들은 일찍부터 총여학생회가 여성취업난이 극심한 상태에서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것에 실망을 표하며, 여성이 사회적 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 평등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함으로써 여학생이 주체적 인간으로 정립하기를 도울 것을 요구하였다.²⁸ 여학생 교지는 여학생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여학생 취업 문제를 제기하며 그 요청에 응답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여학생 교지는 여학생의 또 다른 문제에 밀착하여 관념적인 문제 제기 위주의 구성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연애, 결혼, 그리고 성은 이전부터 여학생 교지의 지면을 채우는 주제였으나,²⁹ 특히 1987년 이후 본격화된 운동의 대중화에 관한 논의에 힘입어 학내외에 산재한 구체적 문제와 함께

27 11월 15일 여대협이 하반기 사원모집에서 여성을 제외한 8개 회사를 고발하는 일이 있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후 기업의 모집·채용상 부당 행위에 대한 최초의 고발이었다. 여대협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정부청사를 방문하여 모집·채용상의 성차별 철폐를 위한 항의시위를 마련했다. 「서울지역 여대협-취업차별 8개 업체 검찰에 고발」, 『여성신문』 제50호, 1989.11.24.

28 박미경(영어교육학과) 총여학생회의 활동을 바라보며, 『석순』 제4호, 고려대학교 석순편집위원회, 1986, 70쪽.

29 1985년에 발간된 『정정현』에서는 ‘性と 사랑’이라는 이름의 좌담을 게재한다. 이 글은 “여성문제를 추상적으로 거론하여 현실에 적용시키지 못했던 것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여성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여성 스스로도 이론과 실천이 종합되지 못한다는 우리의 현실”로 인해 좌담회를 열었다고 설명한다. 「성과 사랑」, 『정정현』 제14호, 성균관대학교 총여학생회, 1985, 158쪽.

더욱 자주 논의되기 시작한다.

여학생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문제 제기가 이 시기 운동에서 특수한 의미와 맥락을 갖는 것은 이 주제들이 당시 운동권에서는 부르주아적인 것으로 여겨져 공개적인 토론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학생에게 이 문제는 매우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과제인 동시에 삶의 방향과도 직결됐다. 특히 ‘순결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규정하는 사회의 차별적 의식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며, 섹슈얼리티와 관계된 담론 가운데 여학생들에게 가장 침예한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의제였다.³⁰ 가장 문제시된 것은 ‘순결’이 여성에게만 강요되며 여성의 ‘가치’에 대한 치명적인 손상처럼 여겨졌다는 점이다. 특히 성폭력과 인신매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당시의 상황에서 이는 피해자를 죄인으로 치부하거나 그들이 스스로를 죄악시하게끔 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었다. 여학생들은 ‘순결’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문제는 여성 자신의 주체적 의지가 결부될 때에만 의미를 가진다고 설파한다.

특기할 점은 운동 사회에 속한 남성의 모순된 태도에 대한 지적이 사랑과 결혼의 문제를 경유하여 드러난다는 것이다. 여학생 교지에는 선배들의 결혼 생활을 담은 수기가 게재되기도 했는데 이들은 모두 ‘민주적인 가정’을 구현하려던 꿈이 좌절된 경험을 통해 남녀관계의 피상성과 남성의 이중성을 체감했다고 쓴다.³¹ 또 연애편에서 나타나는 운동권 남성의 가부장적 미숙함이나³² 남성우월주의적인 사고, 여성에 대한 왜곡되고 편협한 인식과 행동도 지적됐다. 성과 사랑, 결혼의 문제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사회구조적 문제와 결부되어 있음을 파악한 여학생들은 여성의 주체적 인식 변화와 더불어 남성이 방관자적 태도에서 벗

30 『정정현』의 앞선 좌담에는 전반적인 논의가 순결에 치중되면서 올바른 연애 및 결혼관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다루어졌다는 기록이 있다. 위의 글, 94쪽. 순결 이데올로기는 특히 혼전 성관계의 문제와 함께 제기되곤 하는데 이는 여학생의 생활, 특히 연애에서 순결 이데올로기가 여학생을 억압하는 실질적인 기제로 작용하였음을 방증한다.

31 김명희(심리 '84), 「결혼과 그 민주적 가정」, 『석순』 제6호, 고려대학교 석순편집위원회, 1988, 181쪽; 이해경(중앙대 '85), 「결혼 8개월의 체험기-어느 선배의 결혼생활-」, 『녹지』 제24호, 중앙대학교 녹지편집위원회, 1991, 125-126쪽.

32 고명희(중앙대 '85), 「L형의 아름다운 사랑을 위하여-올바른 연애편에 대하여-」, 『녹지』 제24호, 중앙대학교 녹지편집위원회, 1991, 116쪽.

어나 고찰과 반성의 태도를 가질 것을 강조하였다.³³ 올바른 사랑의 개발은 곧 사회의 변혁과 연관되기에, 이에 대한 객관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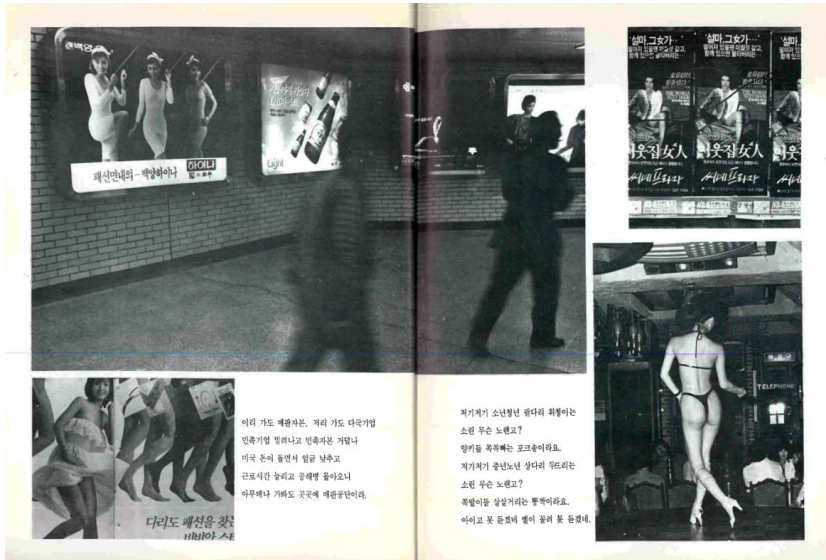


그림 1. 『석순』 4호(1986) 권두화보 「껍데기문화」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매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반미투쟁이 본격화됨에 따라³⁴ 여학생들은 대학사회의 일상문화와 그 기저에 깔

33 1989년 『잉태』의 남학생 인식조사 결과, 남학생들은 특히 여성의 순결을 중요시하면서도 매춘에 대해서는 남성의 본능이라고 보거나 사회문제의 예방을 위한다는 이유로 옹호하는 태도를 고수한다. 『잉태』는 여성해방은 여성만의 일이 아니고 ‘약간 다른 차원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남성도 함께 일어서야함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기에 남학생에 대한 광범위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편집부, 「여성문제에 대한 연세 남학우 의식조사」, 『잉태』 제2호, 잉태편집위원회, 1988, 85쪽.

34 1988년 미국의 포르노 잡지 「허슬러」지가 한국여성에 대한 모독적인 기사로 크게 논란이 되었던 것과 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여대협은 여성단체 등과 ‘에이즈 비상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에이즈의 문제와 ‘매춘올림픽’의 실태를 폭로하고 미군기지와 기지촌 문제를 제기하였고, 「미국의 도색매춘문화 및 AIDS 추방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미국에 의한 ‘도색매춘문화’와 에이즈의 확산이 “민족자주성에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민족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관련 내용은 「도색잡지 퇴폐映畵 AIDS 등 “저질 미국文化 추방하자”」, 『동아일보』, 1988.10.14.

린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의식을 공론화할 수 있게 된다. ‘저질 미국문화’, ‘양키문화’를 추방하자는 주장은 여학생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대학사회와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다. 각 대학 총여학생회는 성 상품화 추방 캠페인을 벌여 학교 내외를 단속하였고³⁵ 여학생 교지에서도 대학 내의 반(反)여성적 문화풍토에 관한 글을 실어 남성 중심적인 대학문화와 대중문화를 점검, 비판하며³⁶ 건강한 ‘여성성’과 대학문화를 회복하고자 한다. 총여학생회가 주관하던 이른바 ‘정풍운동’³⁷은 성 상품화가 자본주의의 모순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운동권의 논리 안에서 여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향을 제공하였다.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이슈가 전체운동의 의제와 접속하고 ‘인간해방’과 사회변혁을 위한 조건으로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에 관심을 두지 않던 남학생 역시 이러한 억압의 당사자가 되는 동시에 그에 맞서야 할 주체로서의 의무를 지게 된 것이다.

요컨대 당시 여학생운동의 주체들은 다양한 담론과의 경합 및 접속을 통하여 사회변혁의 주체를 자처하던 남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이중성을 지적하고, 진정한 사회의 변혁을 위해서는 여성의 주체적 자각뿐 아니라 남성이 모순적 태도를 극복하는 과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여성 성 상품화의 근절과 평등한 남녀관계 형성을 위한 작업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진정한 ‘해방’에 관하여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즉, 사회운동의 전개에 있어 왜곡된 연애관이

35 「총여학생회 「여성대회」 개최—여성의권리·불평등사례 발표」, 『고대신문』, 1987.9.21; 「왜곡된 女性象의 實踐的 척결」, 『성대신문』, 1988.5.23.

36 예컨대 『석순』에서 한 필자는 선배가 ‘성인 구락부’에 데려갔던 경험을 토대로 남성 위주의 대학문화에서 겪은 고충을 설파하며 “상품화된 여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며 여성운동의 필요성을 당부하던 개인(?) 남학생들조차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여성을 소외시키고 똑똑한 여성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보이는 태도”를 비판한다. 최영현, 「여자의辯」, 『석순』 제5호, 고려대학교 석순편집위원회, 1987, 279쪽.

37 ‘정풍운동’은 “퇴폐·향락적인 문화를 지양하고 올바른 대학문화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시기에 부합하는 주제를 정해 주별 행동지침을 두었다. 「총여, 사업계획 발표—정풍운동전개도 함께」, 『중대신문』, 1989.3.27. 총여학생회가 주도하던 여타 행사가 여학생을 대상으로, 여학생에 의해 전개된 반면에 정풍운동은 여학생뿐 아니라 남학생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운동으로 강조되곤 한다.

나 결혼관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이에 대한 자각과 실천적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화’는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³⁸



그림 2. 『녹지』 23호(1989)
「여성신문」 광고에 대한 비판



그림 3. 『정정현』 16호(1988)
만화 「우리집 II」

주지하듯이 이것이 운동사회의 여성주의적 강화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를 1980년대라는 상황이 야기한 필연적 과정으로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논의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마르크스주의나 운동권예의 접속을 바탕으로 하여 여학생들은 자신의 상황을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인식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이를 여학생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성 민중의 문제와 결부함으로써 여성과 남성 모두의 변화와 참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당장 가시화된

38 푸코에 따르면 파레시아는 특히 민주주의와 긴밀한 관계를 이룬다. 발언의 평등이 민주주의의 토대를 이룬다면, 다수의 의견에 맞서 공동체에 이익이 된다고 믿는 바를 발언하는 용기, 평등만으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는 돌출이 필요하다. 즉, 파레시아는 타인과의 기울어진 권력관계 속에서 아래에서 위로 일어나는, 분노와 폭력의 위험을 무릅쓰고 행해지는 말하기를 의미한다. 미셸 푸코, *오트르망 심세광·전혜리 역, 『담론과 진실: 파레시아』*, 도서출판 동녘, 2017, 368-373쪽.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18년 총여학생회 폐지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었으며, 그에 대한 대항의 일환으로서 성균관대 총여학생회 재건모임 및 동국대·연세대 총여학생회가 주최한 포럼과 공동 집회의 이름이 “그 민주주의는 틀렸다”였던 것은 의미심장하다.

움직임을 이끌지는 못하였다 해도, 이들이 열어둔 가능성은 이후 대학 내 여성운동이 또 다른 문제 제기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5 결론

여학생운동은 운동의 남성 중심성을 체감한 여학생들이 그들만의 독자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그것이 분화하는 과정에서 시작되고 발전했다. 여학생운동의 주체들은 여학생 교지에서 활동 내역과 연구 결과를 정리하는 한편 여학생을 비롯한 여성의 다양한 삶과 경험에 대한 글을 게재함으로써 여학생 대중의 공감과 의식화를 도모했다. 이를 통해 ‘여대생’을 비정치적이고 보조적인 주변적 존재로 재현하던 지배담론으로부터 벗어나 정치적 주체로서 ‘여학생’을 구성하고자 하였으며, 여학생 교지는 이를 위한 담론적 투쟁의 장으로 기능했다.

이 글이 특히 주목한 것은 여학생운동이 ‘여성운동’과 ‘학생운동’의 종합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여학생운동은 분명 학생운동의 한 분파인 동시에 대학 내 유일한 여성운동의 담지자였으나, 여학생이 남녀공학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경험하게 된 정치적·문화적 불평등은 여학생운동만의 특수한 방향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여학생이 당면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운동사회의 남성 중심성에 대한 비판이나 성별 위계화에 관한 문제 제기 역시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운동 이론을 취합하고 모방하는 부침의 과정에서 여학생운동은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을 배태하였다. 여학생과 여학생운동을 이러한 시각에서 읽는다면 1980년대에서 현재에 이르는 대학 내 여성운동의 계보를 단절이 아닌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여지가 생겨난다.

여러 미비함으로 인해 이 논문의 문제의식이 충분한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한 듯하다. 여기서 미처 다루지 못한 여학생 교지나 각 대학 총여학생회가 발간하던 회지와 신문, 그리고 이전 시기에 학도호국단 여학생부가 발간하던 여학생 교지 역시 발굴되고 연구되어야 한다.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이 시기 운동 주체들의 용성거림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1980년대에 관하여 더욱 풍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녹지』, 『석순』, 『잉태』, 『정정현』, 『청지』
『고대신문』, 『동아일보』, 『성대신문』, 『여명』, 『연세여성』, 『중대신문』, 『여성』,
『여성신문』

단행본

미셸 푸코, 오트르망 심세광·전혜리 역, 『담론과 진실: 파레시아』, 도서출판 동
녘, 2017, 368-373쪽.

논문

허 윤, 「1980년대 여성해방운동과 번역의 역설」, 『여성문학연구』 제28호, 한
국여성문학학회, 2012, 239-264쪽.

